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4호 [부제 제25072호] 주제 104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웅장화려하게 솟아오른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따라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속에 세상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명을 최대의 속도로 창조해가는 백두산대국의 기상인양 날로 변모되는 사회주의조국의 수도 평양에 미래과학자거리가 보란듯이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동당시대의 선경거리로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였다.

황병서 동지, 김기남 동지, 김양건 동지, 오수용 동지, 조용원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북군중장 김정관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과 대용단, 불면불휴의 로고와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는 당창건 일흔흔을 맞으며 우리 당이 교육자, 과학자들에게 안겨주는 은정어린 선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2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우리 인민의 문명의 발전속도, 나라의 힘, 당의 정책이 건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민협동작전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제기일에 끝낼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이 공사장전역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를 계속 확대하여 대상별, 단계별과제를 일정에 계획대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건설력량을 증강해주시고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미래과학자

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총공격을 벌임으로써 미래과학자거리 1단계 건설을 올해 태양절 전으로 끝낸데 이어 2단계 건설도 당창건 일흔흔을 맞으며 완공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절대시하시고 교육자, 과학자들을 참다운 애국가, 혁명가로 값높이 내세워 주시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덕이 낳은 사랑의 기념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를 바라보시며 불수록 멋있고 웅장화려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리,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희희한 거리, 문명개화기가 더욱 활짝 꽃피어나는 시대에 수도 평양에 펼쳐진 우리 식의 특색있는 거리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모든 건축물마다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150여개의 봉사망들을 갖춘 웅근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운다는것은 기존 건설공법으로써는 상상도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래과학자거리를 보니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는 우리 조국이 10년후면 더욱 물라보게 전변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걱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총성의 다리에서 양각다리까지의 대동강호안을 따라 초고층살림집들과 목음식살림집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았다고 하시면서 건물의 외벽을 갖가지 색타일로 마감하고 지붕형식도 세롭고 특색있게 시공하니 미래과학자거리가 천연색거리로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멀리에서도 미래과학자거리라는것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전차자리길의 모양으로 타래쳐오르게 시공한 53층초고층살림집에 상정탑을 건설했는데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축물들이 고도로 예술화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살림집들의 시공의 질이 최상의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공동살림방, 부모방, 부부방, 자식방, 부엌 등에 고급가구와 비품들까지 그쁘히 갖추어놓으니 교원, 연구사들이 손집만 들고 오면 살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시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의 궁궐같은 살림집들에서 우리의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살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믿으려고조차 하지 않을것이라는 일군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각종 상업, 규양, 편의봉사망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건물의 기단층들에 구색이 맞게 배치하였을뿐만아니라 흠잡을데없이 꾸려놓았다고 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웅장화려하게 솟아오른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주민들이 마음껏 휴식하고 운동도 할수 있도록 휴식터들과 체육공원들을 이채롭게 꾸려놓았으며 주택지구의 원림조성과 대동강호안공사도 정말 잘했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천사만사인 국사중에 과학기술발전을 어떻게 중시하고있으며 과학의 힘으로 세상에 다시없는 인민의 락원, 강성국가를 건설해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알려면 미래과학자거리에 와보면 될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으로 사회주의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과학의 기관차로 사회주의를 전진시키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최근년간 여러 과학연구기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과학자, 연구사들의 생활상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계속 늘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선경거리가 일떠섬으로써 우리 조국의 문명의 중심인 혁명의 수도 평양시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방방곡곡마다에서 당창건 일흔



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자랑찬 로력적 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세인을 놀래우는 창조물들이 연이어 일떠섬으며 미래과학

자거리완공이라는 경사도 이룩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총정다해 받드는 군대와 인민이 마련한 풍성한 열매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가장 경사스러운 혁명적명절로 뜻깊게 경축한 시기에 미래과학자거리가 훌륭히 일떠섬것은 우리 당의 건축미학 사상의 정당성과 자립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되며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섬는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계에 과시한 사변으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위해 조선인민군 제521사단을 조직하였는데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본보기답게 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제일 방대한 공사량을 맡아 <단숨에>의 공격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건설부문과 성, 중앙기관 돌격대를 비롯한 건설에 참가한 단위들의 건설자들과 지원자들도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의 질과 속도를 보장함으로써 멋쟁이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3 면 으 로 계속



위대한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웅장화려하게 솟아오른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 력사에 전례없는 비상한 속도로 솟아 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모든 건축물 들은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 하며 앞날에 대한 락관을 안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소중한것을 자기식 으로 창조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피끓는 심장으로 일떠세운 선군조선 의 긍지높은 창조물, 요소요소마다 애국심이 뜨겁게 어러있는 고귀한 결정체라고 하시면서 건설에 참가한 부대들과 단위를, 건설자들, 지원자들 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건설자 들이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발휘한 불굴 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평양시를 선군 문화의 중심지로, 모든 면에서 으뜸가는 웅장화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더 잘 꾸리며 사회주의조국을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해 가리라는 기대 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 거리 준공과 관련한 지시를 주시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위한 장엄한 대전진군에서 보다 큰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이 땅우에 김정은시대와 더불어 후세에 길이 전해갈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들을 더 많이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를 다짐 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월남인민군 총정치국 부주임이 선물을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선물을 드리었다. 용이 부주임이 20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전달하였다. 하고있는 월남인민군 총정치국 부주임이 월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 단장인 쉐 쯘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감독들에 대한 국가 표창 수여 모임 진행

【평양 10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감독들과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최용해동지가 발언하였다. 그는 우리 태권도선수들이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이룩한 성과는 태권도가 나아가고자 할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결승권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감격적인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선수, 감독들과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배풀어 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위투사자 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방북된 다음 김일성청년영예상이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 선수 김일화에 수여되었다. 령장도태권도선수단 선수 립위서,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 선수 한성민,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 선수들인 홍범, 최수련, 황해남도태권도선수단 선수 김수련,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 감독 김성국에게 인민체육인칭호가, 함경남도태권도선수단 선수 리용일, 중앙체육학원 학생 리은정에 공훈체육인칭호가 수여되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작사 차호근
작곡 우정희

승엄하게, 열정적으로 (♩ = 75)



2. 우린 안고 사네 향도의 붉은 당기
삶의 결을결을 영광으로 이끄네
존엄높은 생의 숨결을 이어주는 펠릭스소리
한생토록 꺼지지 않을 신념의 불 지펴준 기록
혁명위해 바친 우리의 심장
이 기발속에 고동치러라

3. 우린 지켜가네 성스런 붉은 당기
힘찬 삶의 박동 그 품에만 잇고 살리
모든 념원 꽃핀 미래로 불리우는 펠릭스소리
일편단심 따르는 길에 태양처럼 빛나는 기록
대를 이어 우리 세상 끝까지
이 기발 따라 한길가러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 건설자들, 발전소완공에 기여한 련관단위 일군들, 근로자들

평양도착

【평양 10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발전소완공에 기여한 련관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2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애국충정의 고귀한 피땀을 뿌리며 당정결사판결의 정신으로 청춘대기념비를 일떠세운 청년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뜻깊은 평양견학의 나날을 보내도록 크나큰 은정을 배풀어주셨다. 평양역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발전소완공에 기여한 련관단위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합니다」라는 구호관이 세워져있는 연구내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는 청년들의 애국적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뜻깊은 평양견학의 나날을 보내도록 크나큰 은정을 배풀어주셨다. 평양역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발전소완공에 기여한 련관단위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합니다」라는 구호관이 세워져있는 연구내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는 청년들의 애국적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뜻깊은 평양견학의 나날을 보내도록 크나큰 은정을 배풀어주셨다.



조선중앙방송창설 70돐 기념 보고회가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 관료, 중앙과 지방의 방송일군들, 로동통신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방송창설 70돐을 맞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기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나라 전체 인민이 당창건 70돐을 조국력사로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라는 당과 수령의 불멸의 영광을 축하하며 축하하는 열광의 혁명사건이며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선전기관이라는 데 대하여 지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신 1돐 기념보고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신 1돐 기념보고회가 20일에 진행되었다. 박태성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 휴양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소장 리영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 10월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아서 사랑의 자락을 새기신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종합봉사소를 비롯한 여섯곳을 돌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방석이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을 전하면서 현행혁명적정세와 우리 당의 정당성과 불려성을 만민에게 파시하고 친만군민을 당정결판결으로 힘있게 고부추동하였다. 중앙방송위원회에서 내보내는 혁명적음악과 영화들,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대한 기사, 편지물들은 사람들에게 혁명적정세관과 풍부한 상식을 주고 정의롭고 문명한 인간으로 키우는 중요한 길목으로 되고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최근 년간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적수요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방송형식과 내용, 기술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물들을 개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원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항상 대형모자이크벽화와 사진물들을 정중히 모시고 교양정점들과 청사와 구내를 훌륭히 꾸리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을위행하는 임무를 띠고있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3차에 걸쳐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으며 많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국가표창과 명예칭호들을 받는 영예를 지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목소리, 혁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사상선전의 전초병으로서의 높은 사명감을 지니고 주체방송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황영보의 보고에 이어 제1부위원장 겸 텔레비전방송사 사장 최영진, 부위원장 전일광, 국장 정문철, 처장 최정진 등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군대와 인민이 승리자의 신심들이 조국해방 7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민족의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이 온 세계에 더욱 힘있게 떨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중앙방송창설 7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은 우리 당사상선전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화술형상과 방송형식을 개선하며 방송의 현대화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뒤흔들었다는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성경제시대의 방송의 면모가 더욱 살아나게 하기 위한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벌리며 방송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알뜰히 거두고 정상유지, 정상보수, 정상관리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1950년대 방송일군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따르며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하며 어떤 불의의 정세전선의 진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